

당신은 괜찮습니까?

I Will Give You Rest



에드 쿠라스 지음
존 샌드포드 추천
김한나 역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는 방법
당신의 삶에서 주님의 평강과 자유를 경험케 하는 실제적인 안내서

당신은 관촬습니까?

초판 1쇄 발행 2011년 3월 10일

지은이 에드 쿠라스(Edward Kurath)

옮긴이 김한나

펴낸이 장주희

펴낸곳 아이러브처치

디자인 아트엘

전화 0505)267-0691

팩스 032)505-6004

등록번호 제 354-2009-000006호

등록일 2009년 5월 1일 (최초등록일 2005년 2월 17일)

홈페이지 www.churchbook.net

이메일 churchbook@hanmail.net

판권소유 (c) 아이러브처치 2011

값 12,000원

ISBN 978-89-92367-60-8 03230

“아이러브처치(ilovechurch)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마 24:14)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아이러브처치는 찬양을 통한 영적회복, 도서를 통한 영적 강건함, 문화를 통한 복음화, 그리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추구합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에드 쿠라스(Edward Kurath)와 계약한 ‘아이러브처치출판사’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I Will Give You 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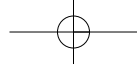
추천의 글

에드 쿠라스가 저술한 이 책은 기독교적 기도 치유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유용하리라 기대한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해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혼돈을 피하게 했고, 적절한 성경구절을 인용함으로써 내적치유의 전 분야가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에 속해 있으며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내가 추천한 책들 가운데 이 책이 독특한 것은 신학적이고 전문적인 많은 상담자료들을 인용해서 각주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독자에게 더 넓은 영역과 견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복잡할 수 있는 설명에 도해를 덧붙여 주어서 그림 하나가 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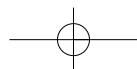
에드는 내적보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의 감추어진 보화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



내적치유 책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악하게 작용한 것의 감추어진 면을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상담가들이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서 종종 피상담자들은 스스로 무가치한 것 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무참하게 만들고 놓는다. 반면에 에드가 강조하는 것은 상담자와 피상담자를 치유의 부활적인 면과 내주하는 소망 안으로 들어 올려주고 있다.

이처럼 에드는 기도상담 사역을 단순한 치유나 기능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대로 자기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올려놓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 의미가 되리라. 많은 상담자들은 그들의 상담 사역을 치유, 다시 말해서 부러진 것을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으로만 보고 있다. 그러나 에드의 기도 사역이 지향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을 사용해서 영원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의 복된 성품을 우리의 성품에 기록하게 하시는 데 있다.

주님과의 동행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또한 여태껏 해왔던 것보다 더 성공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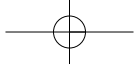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이 실제적인 지침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데 어려운 일들이 요구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보상을 받으리라 믿는다. 하나님이 늘 당신으로 하여금 되기를 바라셨던 그런 사람이 되면서 당신에게 주님의 보상이 주어진다.

이 책은 심각한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책이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깊이 사역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 책은 가장 의미 있고 실제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신의 매일의 삶에서 이 책의 가르침을 적용하며, 또한 당신의 고백도 기도치유를 받는 과정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 가르침을 실행하도록 권면하기 바란다.

존 샌드포드 목사

'엘리아의 집' 공동 설립자, 아이다호의 포스트 폴스 소재



차례

감사의글 • 10
들어가며 • 12

제 1부 치유

1.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지만 어떻게? • 16
 · 이 평안은 많은 사람들을 비켜갔다.

2. 왜 막혔나? 하나님 법칙의 운행 • 24
 · 우리는 모두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큰 실수를 한다.
 ·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순종하는데 성공할 수 없다.
 · 그러나 충분히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

3. 모든 썩뿌리 제거하기, 가능한 일이다. • 44
 · 우리 모두는 죄의 많은 뿌리를 갖고 있다.
 ·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뿌리들을 심고 있다.
 · 예수님이 이 뿌리들을 제거해주실 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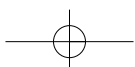
4. 판단이 문제를 불러온다. 판단으로 죄를 짓다. • 58
 · 우리 모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 그런 판단은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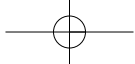
5. 용서가 문제를 끝내준다.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신다. • 72
 · 당신이 진정으로 하는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를 가져온다.
 · 그분의 용서는 당신의 판단으로 생긴 상처를 뒤집어 준다.
 · 힘들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6.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 92
 ·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신다.
 ·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으로 바꾸기 원하신다.

7. 우리를 묶는 결정, 내적 맹세 • 122
 · 내적 맹세는 우리의 쓰디쓴 결정이다.
 · 이런 결정은 우리를 엄격한 행동으로 폐쇄시킨다.
 · 예수님은 완고한 행동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길을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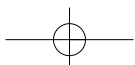
8. 이 땅에서 잘 되리라. 부모 공경하기 • 134
 ·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생이 행통하는데 본질적이다.
 ·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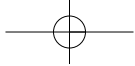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차례

9. 숨겨진 보화가 있다. 당신 안의 두 장소	• 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은 자신을 '나쁘다'고 판단하므로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안의 '보화'를 보신다. 그것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당신의 일부다. · 하나님은 당신이 물어둔 이 보화를 자유케 하기 원하신다. 	
10 최악의 정신적 충격, 사랑의 부재의 상처	• 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악의 충격은 당신이 경험한 나쁜 일들이 아니다. · 당신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의 경험이 아니라 좋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 좋은 것의 부재가 어떻게 당신을 파괴시키는가? 	
11. 감정은 당신의 친구다.	•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은 죄가 되거나 변덕스런 것이 아니다. ·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 당신의 감정은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12. 당신의 좋은 부분, 하나님의 형상	•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은 모두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당신의 일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그 좋은 부분은 아직도 당신 안에 존재한다. · 하나님은 그 좋은 부분을 자유케 하기 원하신다. 	
13. 당신의 나쁜 부분, 육체와 죄	• 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 안에는 '나쁜 부분'이 있다. · 이 '육신'은 무엇인가? 당신은 놀랄지도 모른다. · 이 육신은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제 2부 풍성한 삶	
14.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 우리가 필요한 경험	• 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은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 · 예수님을 경험할 때 당신은 치유 받는다. 	
15.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의 임재의 경험	• 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나? · 그분을 경험하는데 용이하게 해주는 길이 있다. · 이런 과정의 실례 	





차례

16. **축사, 그리고 내적치유** • 284
 · 사단과 마귀들은 실재하며 기독교인들을 압박한다.
 ·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적치유가 축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17. **그것이 여정이다. 새로 뒤바뀐 인생 걸어 나가기** • 292
 ·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 받는 것이 목표다.
 · 이 변화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여정이다.
 · 이 여정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

18. **사랑이 본질적 요소, 자신을 사랑하기** • 310
 ·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 예수님은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마태복음 22:39)
 ·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 안에 평강이 있다.

19 **큰 그림** • 320
 ·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되기 위한 과정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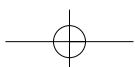
제 3부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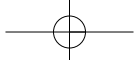
A. **경험과 간증** • 332
 예수님에 의해 치유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B. **상호의존** • 353
 상호의존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왜 파괴적인가?

C. **남녀간 대화의 차이** • 364
 남자와 여자는 다른 창조물이다.
 차이를 이해해야 소통할 수 있다.

D. **뉴에이지의 의도된 상상작업** • 371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뉴에이지의 '상상하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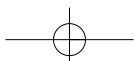
감사의 글

이 책은 사실 팀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자라난 토대는 다양하다. 우리가 상담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아래서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과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은 내 사역과 내가 쓴 글에 공헌한 것이 된다.

보다 직접적인 도움은 내가 아주 곤고할 때에 나를 상담해준 사람들과 내게 내적치유를 가르쳐준 사람들에게서 왔다. 그리고 내가 상담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나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신 주님과과의 만남은 기록하지 않고 단순한 이론만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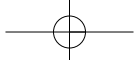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아내 케이가 있다. 그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주님이 늘 계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내 인생과 이 사역을 분명히 책임지고 계셨다.

구체적으로 이 책을 위해 직접 일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많은 시간과 재능을 내어주었고 최종 작품은 그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될 수 있었다: 찰리와 데보라 핼크, 켈과 도나 기프트, 론과 위스티 로젠탈, 마리린 로우섬, 필리스 브라운, 달린 드영, 메리



누미, 사나 우바스, 존 샌드포드, 마크 샌드포드, 내 아내 케이, 그리고 내가 쓴 초고에 반응을 보여주었던 많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는 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덴버 신학원의 교수님들과 루돌프 볼트만의 저서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풍성한 축복이 되도록 주님의 영이 기름 부으시기를 바란다.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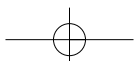
이 책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 모두들을 위해서 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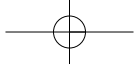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태에 묶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실제적인 책이 되기를 바란다. 이 안에서 나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 그리고 당신이 배운 것을 행하기를 권면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얻은 지식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야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세 단계로 썼다. 첫째는 본문으로서 당신이 이해하기 원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각주로서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 정보다. 마지막이 후주로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다(역자 주 저자와의 합의로 각주와 후주를 생략했음).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각주도 후주도 부록도 무시하고 읽기를 권면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어떤 것은 당신에게 새롭고 도전적인 것일 수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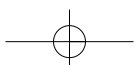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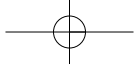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책은 모든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주기 위해서 씌어졌다. 이 책이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씌어졌으므로 종종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증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의 예는, 가계의 죄, 인격 해리현상, 사단 숭배 악폐, 태아의 상처, 영적 견고한 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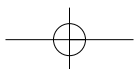
나는 정서적인 증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심리학이 사용하고 있는 세속적인 이름표를 회피했다. 그들은 경계선 인격 장애, 양극 정서장애, 집착충동 장애 등의 이름을 사용한다. 나는 이런 증상의 구체적인 분류가 문제의 뿌리 되는 원인을 발견하고 치유를 가져오는데 특별히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이름표 사용을 회피했다.

이것이 정말 유효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다.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록 A에 실제인물들의 경험과 간증을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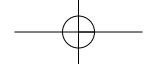


1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 1 장
Chapter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지만 어떻게?



1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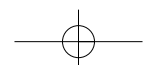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지만 어떻게?

희망이 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던 시절, 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 믿음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쓸수록 내 인생의 갈등과 불협화음은 더 심해졌다. 전혀 해답이 없어 보였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았고 나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전혀 기대치 않게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바뀌게 되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 내 아픔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정신의학자를 만났는데 그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 확신은 들어맞았다! 그는 기도를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엘리아의 집'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존 & 폴라 샌드포드 부부가 제시한 가르



침에 따라 상담하고 있었다. 특정한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몇 주일이 지나자 내게 안도감이 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씩 나를 치료하시면서 점점 더 큰 평강을 가져다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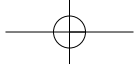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그것은 기적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20년 전이다. 그 이후의 세월동안 벌이 끝에 다가가듯 나는 하나님께 다가갔다. 그분이 내 마음을 치료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점점 좋아졌다. 그때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셨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정도의 평강을 얻으며 내 삶에서도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안다.

당신도 이와 같이 축복받기를 기도한다. 주님은 당신에게도 이 선물을 주기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평강을 당신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내가 이전에 알고 믿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훨씬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9)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진실로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다.



기적적인 두 선물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을 지내게 된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분이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적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겹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며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힘든 멍에며 무거운 짐이었음을 경험해왔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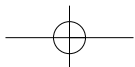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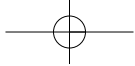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다.

복음을 위해서 삶을 내려놓으려고 애썼다.

생각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

하지만 기쁨과 승리보다는 비참함과 고통과 실패와 정죄감만을 얻을 뿐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삶과는





너무나 달랐다. 우리가 힘써 애쓸수록 더 실패할 뿐이었다. 기진하고 낙담되었다. 바울의 갈등에 동감할 수 있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로마서 7:1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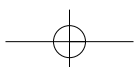
애쓰며 실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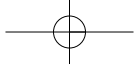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간단한 계획을 세웠다. 매 15분마다 내 생각을 그분께 집중하며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기로 결심했다. 직장에서는 큰 벽시계가 바로 내 앞에 있었으므로 이 계획을 수행하기에 좋았다.

그러나 일은 바뻐다. 나는 시계를 보면서 기도하고 나서 2시간이 넘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과 실패감을 느끼며 결심을 새롭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실패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는 것도 아니고 숯불 위를 걷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내가 하고자 한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지만 아무리 작은 것도 나는 할 수 없었다.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갈등한다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거듭하는 자들은 우리만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처럼 갈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위선자처럼 느껴지는데 불신자들이 더 먼저 알아채고 우리를 이





렇게 부르고 있다.

이것은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좋은 소식과는 그림이 너무나 달랐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 해답은 우리가 평상시 당연한 듯이 생각해오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선뜻 납득하기 힘들지 모른다. 나도 처음에는 마음에 썩 와 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없다. 그 분께서 드러내 주셔야만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답변을 알려주셨지만 우리의 이해는 차단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해답이 그 곳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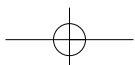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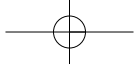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당신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이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실재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붙잡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가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가정하자. 전문가가 내게 이렇게 말한다. “이 작은 공을 클럽으로 쳐서 저기 있는 구멍에까지 가게 하시오.” 이 정





보는 분명 맞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 장들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당신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행동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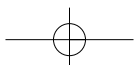
당신이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믿어야 하고 그것을 말함으로써 행동해야 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9-10)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하고(그분의 공급을 이해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것을 말함으로써 행동해야 한다(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은 이 땅의 삶에서 받는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이 책은 상담책이 아니다. 긴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책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함으로 늘 갈등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읽어야 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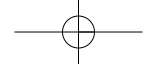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몇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지 않으셨다.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불을 밝히자

당신은 캄캄한 중에 안경을 찾으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낮선 어둔 방에서 전구 스위치를 찾으려고 한 적이 있는가? 그것들은 이미 그 곳에 있었지만 당신이 보지 못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므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불을 켜면 그것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 이제 불을 켜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멋진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자.

제 2 장
Chapter

왜 막혔나?
하나님 법칙의 운행



2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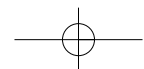
왜 막혔나? 하나님 법칙의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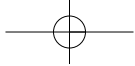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로마서 7:15)

이 말씀은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러므로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심오





한 이유가 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재 세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것이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만드셨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재에는 세 개의 세계가 있다.

첫째, 물리적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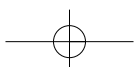
둘째, 영적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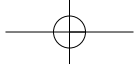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셋째, 정신적 세계

물리적 세계

우리는 모두 물리적 세계의 질서정연함을 알고 있다. 물리나 화학, 수학 등의 물리법칙은 불변한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적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은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무너졌을 때 빌딩의 디자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저앉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붕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함이다. 그것을 방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물리의 불변하는 법칙 때문이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물리의 법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빌딩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만약 내가 날 수 있다고 믿으며 지붕 위에 올라가서 팔을 벌려 열심히 날갯짓하며 위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자. 나는 아마도 다리가 부러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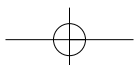


땅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중력의 법칙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말든, 동의하든 말든, 믿든 말든 상관없이 그 일은 일어난다. 중력의 법칙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내가 다리가 부러진 것이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깬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중력의 법칙은 변치 않는다. 예외가 없다.

영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은 또 다른 측면의 실제 세계로서 거기에도 물리적 영역에서처럼 질서가 있어서 늘 변치 않는 법과 원칙이 작동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법칙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의 명령은 영적인 영역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하실 때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거짓말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지붕에서 뛰어내리면 안된다. 그러면 네게 나쁜 일(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을거야.”

물리적 영역에서는 아무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아무도 아무것도 없앨 수 없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모든 것에 결과가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 언제나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죄’ 라고 부른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언제나 해로운 결과를 거두게 된다. 영적 영역에서는 물리적 영역에서처럼 결과가 즉시 일어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잘못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났는지 연결시키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심리적 영역

실재의 세 번째 것은 심리적인 영역이다. 심리적인 영역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작동된다. 습관 패턴, 지식, 의지력은 심리적인 영역 안에 속해 있다. 우리의 의지력은 심리적인 영역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이므로 그곳에서 권위가 있다. 만일 내가 칫솔질만 하고 치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치실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면 의지를 사용해서 성공할 수 있다.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새 습관이 형성되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는 큰 실수

우리가 하고 있는 큰 실수는 우리의 의지력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권위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력은 오직 심리적인 영역에서만 권위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의지력을 사용해서 물리법칙이나 영의 법칙에 저항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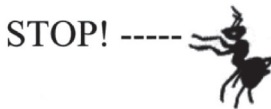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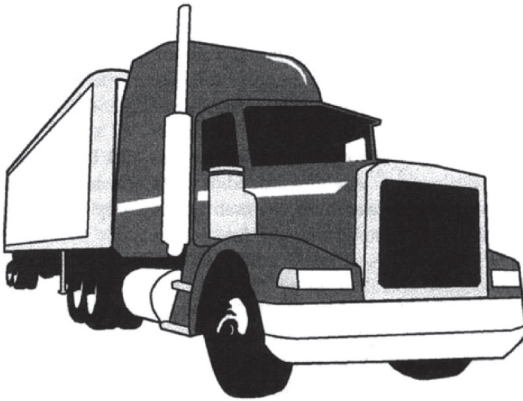
우리의 의지력은 물리적 영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법칙을 저항하는데 무력하다. 의지력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팔을 움직여서 날 수 없다. 오백 파운드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결심할 수는 있겠지만 실행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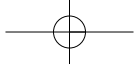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우리의 의지력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력하다. 의

지력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적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영적인 일은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발견했다. 우리는 해야 하는 선한 일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수는 있지만 실행하지는 못한다. 오호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기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실재를 오해한 때문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 아래에 살고 있다.

심리적 영역에 있는 우리의 의지력과 영적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되는 능력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고속도로 위에 서있는 개미를 상상해 볼 수 있다. 큰 트럭이 전속력으로 질주해 올 때 그 트럭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개미가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과 같다.





개미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의지력으로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그렇게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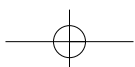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 배우면서 더 높은 기준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암시를 받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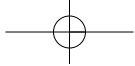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5:20)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의지력이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의지력을 뛰어넘는 의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갖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분처럼 된다. 그분처럼 된다는 것은 결국 그분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다.





의지력에 대한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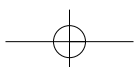
서구 문화의 큰 비극 중의 하나는 인간의 의지력과 지식을 높여서 인생의 보좌에 앉히려려고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의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신뢰할 수 없고 또는 나쁘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망상에 붙잡혀 있다. 의지력과 지식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곤경에 처할 때마다 생각없이 자동적으로 의지력과 지식에 의지해 버리려고 한다.

차 뒤에 붙여놓은 스티커의 ‘그냥 아니라고 말하라(Just Say No)’는 메시지는 좋은 예가 된다. 만약 마약에 붙잡힌 사람들이 그냥 아니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보지만 거둑거둑 실패하고 만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의 의지력을 사용해서 끊으려고 결심하고 열심히 애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칙에 관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오해는 큰 문제인데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 성경은 우리의 의지력에 대한 착각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7:7-25).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온 보편적인 과오다. 그것은 너무나 자동적이고 교활하고 은닉되어 있어서 우리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게 무슨 소용이지? 우리가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영적 법칙을 우리의 의지로 제지할 수 없다면 숫제 다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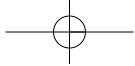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그러나 좋은 소식은 가능한 길이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떤 큰 트럭이 속력을 내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앞에 차가 막혀서 트럭 운전자는 급히 차를 멈춰야 했다. 그는 차문을 열고 바닥에 발을 끌면서 차를 멈추게 할까? 물론 아니다. 그에게는 트럭을 멈추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나 브레이크 페달이 있다. 그는 단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것을 밟는 행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력한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시킬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트럭은 멈출 수밖에 없다. 운전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차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의 것을 해야 한다.

- 첫째, 차를 멈춰야 하는 것을 인식한다.
- 둘째, 브레이크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음을 믿는다.
- 셋째, 기계를 작동시키기로 결심한다.
- 넷째,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실제로 행동한다.

이것이 운전자의 할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 첫째, 문제를 인식한다.
- 둘째, 영적 법칙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것을 공급하셨음을 믿는다.
- 셋째, 의지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동작시키기로 결심한다.



넷째, 기도로 행한다.

당신도 보드시피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의지력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의지력이 자유를 가져다주는 힘이나 능력은 아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 장들에서 계속 설명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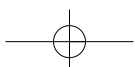
하나님의 법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갖고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방법’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작동됨으로써 우리 인생에 파괴와 낙심과 실패를 가져다주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만드셨을 때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좋은 것을 가져올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맞춘다면, 즉 영적 세계의 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복)를 받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에덴동산을 거닐었을 때는 좋은 삶을 살았다.

반면에, 나쁜 것을 가져올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맞춘다면, 즉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쁜 결과(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쁜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협조할 때는 언제나 복이 흘러내린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복을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자마자 나는 그에게 십일조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그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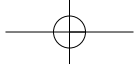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빠, 어떻게 내 월급에서 십 퍼센트를 떼어낼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용자 받은 학자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인데.’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고 십일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그러자 즉시로 그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는 너무나 놀랐다. 그는 계속해서 십일조를 드리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경제를 축복하고 계신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말이 있다. 돈이 많은 것이 언제나 좋다는 것이 아니며 돈이 없다고 해서 늘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이 장을 더 읽어가면 이 점이 좀 더 분명해진다.

우리는 복이 중단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한다. 복을 받는 영적 법칙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영적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나쁜 일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된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 옥수수를 심고 도마도를 거두지 않는다. 죄를 심고 복을 거두지도 않는다. 죄를 심으면 나쁜 결과를 거두게 된다. 죄를 짓는 데에는 여러 길이 있으며 모든 죄에 대해 결과가 있다.

그 결과들이란 우리가 하기 원하지 않는 행동들이다.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되면서 우리는 강제로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의지력은 우리를 이런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데 완전히 무능하다. 바울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생긴 속박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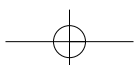
충분한 능력을 가진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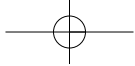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우리가 인생에서 파괴와 낙심과 고통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가진 한 체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죄고, 죄의 유일한 치유책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대신 갹아주시고 자신이 우리 빛을 대신 지신다. 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영원히 계속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무게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특정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죄짓지 않은 것처럼 된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서 계속 일어났던 나쁜 일들은 이제 중단된다.

보혈과 십자가

나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 대해 종종 말할 것이다.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고 그것에 보혈을 바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보혈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불의





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공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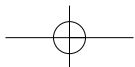
하나님의 이 공급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발자취를 따르며 짓고 있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공급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보혈과 십자가가 당신의 매일의 삶에서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이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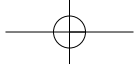
예수님이 이천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지만 그 공급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빛을 탕감하셨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공급하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실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죄에 의식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등의 특정한 행동을 취할 때에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공급으로부터 유익함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예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트럭 운전자는 트럭에 설치된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밟아야 한다. 다음 장들에서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법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어떤 관대한 사람이 내 은행 계좌에 일천 달러를 넣어 주었다고 가정하자. 내가 수표를 쓸 때에야 그 돈이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 그 돈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그리고 그것이 그 계좌에 있음을 믿지 않는 한, 또는 돈을 꺼내기로 결정하고 수표를 쓰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 돈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죽는 날까지 그 돈은 사용되지 않은 채 내 계좌에 남아 있게 된다.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하며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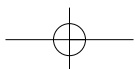
나쁜 행동을 중단시키는 두 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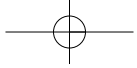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인식할 때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러나 나쁜 행동이 나오는 데에는 두 가지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심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바로 그것이다. 원치 않는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영역의 도구를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

만일 정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의지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나쁜 행동(나쁜 열매)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틀린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력이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고 영적 세계의 도구인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력이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다만 그것이 갖는 권위는 오직 정신적인 영역에만 있지 영적 영역에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 중에서 드라이버와 망치는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 누군가 드라이버를 갖고 장작을 패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망치를 갖고 시계를 고치려고 해도 안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은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당신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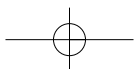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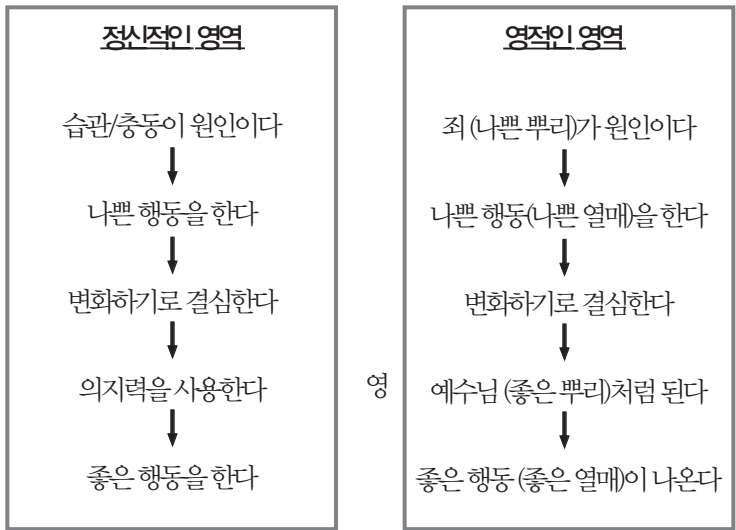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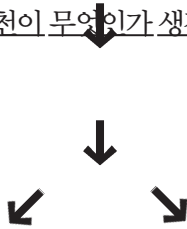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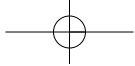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에 대한 도해다.

나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선택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인식한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한다





적인 영역에 근원을 두고 있는 나쁜 행동은 강경하고 강제적이고 강력해서 우리의 노력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이 이끄는 대로 묶이면서 계속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들(나쁜 행동 또는 나쁜 열매)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든가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하는 상호의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상호의존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은 <부록 B>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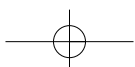
나쁜 뿌리와 나쁜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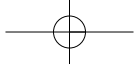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우리가 죄를 지으며 가슴에 상처를 심으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죄는 나쁜 뿌리가 된다. 나쁜 뿌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 복음 7:17-18, 20)

우리의 나쁜 행동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들은 나쁜 뿌리에서 나온 나쁜 열매들이다.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 나쁜 뿌리는 절대로 없다. 나쁜 뿌리는 언제나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뿌리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는다. 뿌리는 그것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거기에 예외는 없다. 나쁜 행동은 좋은 뿌리에서 나오지 않고 좋은 행동은 나쁜 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열매에서 뿌리를 거꾸로 추적하기





당신의 의지가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하는 데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영적인 문제(나쁜 열매)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근원(나쁜 뿌리)을 발견해야 한다. 행동(나쁜 열매)에서 원인(나쁜 뿌리)으로 거꾸로 추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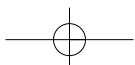
다음 이야기는 한 사람의 나쁜 행동이 어떻게 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마이크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아버지는 말과 행동으로 그를 학대하는 죄를 지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채 마이크를 두들겨 패곤 했다. 마이크는 학대받는 것을 싫어하며 학대하는 아버지를 판단했다. 그런데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어른이 된 마이크 자신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성을 잃은 채 자기 아들을 때리고 있었다. 마이크는 강압적으로 하는 죄된 행동을 아무리 애써도 멈출 수가 없었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된 행동에 강압적으로 이끌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판단했던 쓴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쁜 열매를 맺으며 그가 싫어하는 죄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나쁜 뿌리를 위해 기도하라

일단 나쁜 뿌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 다른 치유법은 없다.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한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공급을 어떻게 적용하며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하게 말하겠다.

죄의 나쁜 뿌리가 해결되면 나쁜 나무는 더 이상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사과나무를 예로 들어 이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사과나무는 사



과를 맺는다. 그 나무에서 사과를 따도 사과는 그 다음 해엔 다시 맺는다. 그 나무는 이미 따버린 사과를 대신해서 복숭아를 맺지 않고 여전히 더 많은 사과를 맺는다. 우리는 사과를 보면서 그것이 복숭아나무가 아닌 사과나무라는 것을 안다. 사과나무가 없어지면 사과도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나쁜 뿌리가 사라지면 나쁜 열매를 맺을 나쁜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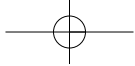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나쁜 열매도 죄인가?

나는 지금까지 나쁜 뿌리가 치유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강조해 왔지만 나쁜 열매도 죄가 된다. 마이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판단했던 것은 죄로서 나쁜 뿌리가 되었다. 자기 아들을 학대하는 행동도 나쁜 열매 이면서 죄인데 이것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쁜 행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열매와 뿌리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든 예화에서 마이크는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학대의 행동을 회개해야(열매를 따야) 하지만, 거기서 중단한다면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열매가 다시 자라난다). 그가 혐오하는 이런 사이클이 중단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를 판단했던 죄를 다루는 것이다(나쁜 뿌리를 파낸다). 4장과 5장에서 그 과정을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한다.

나쁜 열매는 언제나 나쁜 뿌리에서 나오며 좋은 열매는 언제나 좋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을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나쁜 뿌리를 제거하고 좋은 뿌리(예수님)를 대신 심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여태껏 우리는 열매 검사관이 되어 나쁜 열매를 발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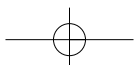


고 따버리는 데에만 초점을 두었다. 나쁜 열매도 분명 죄가 되므로 이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나쁜 뿌리를 없앨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거둬들일 실패할 수밖에 없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제공하신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죄의 열매만 아니라 죄의 뿌리에도 그것을 적용시켜야 한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정결해지고 죄의 열매가 더 이상 맺지 않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세상에는 아직도 결과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의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분노하며 이전에 그가 행했던 학대 행위로 인해서 그를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들도 상처받았으므로 예수님에 의한 치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그의 이전 학대 행위로 인해서 아내와 이혼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은 치유 받았어도 그의 가정은 아직도 깨어진 채로 남아 있다.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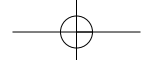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있는 우주는 불변하는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분의 처음 의도는 이 법들이 인간에게 적용되며 축복을 받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게 되면 영적 법칙이 역사하는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 법칙의 저주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역사하도록 가동시킨다.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만들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으므로 우리가 죄의 결과들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아시고 우리를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제 3 장
Chapter

모든 쓴뿌리 제거하기
가능한 일이다



3
chapter

모든 쓴뿌리 제거하기 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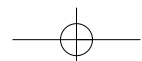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내부 구조가 어떨까에 대해서 깊이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을까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의 내부는 향아리처럼 하나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부는 이제 깨끗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내부가 순결하므로 밖에서도 순결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석하지만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인생은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특히 7장)를 쓸 때도 인생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의 내부를 비유하자면 향아리가 아니라 벌집이라고 말할 수 있

4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그것은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역에는 예수님이 계시므로 ‘좋은 뿌리’가 자라나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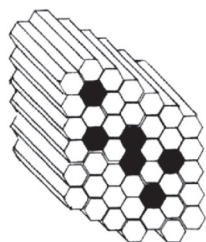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총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22-23)

하지만 어떤 칸에는 아직도 나쁜 뿌리가 심겨져 있다.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나쁜 뿌리들은 나쁜 열매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나쁜 뿌리는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 복음 7:17-1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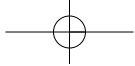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다음에 보이는 벌집 그림에서 나쁜 뿌리가 심겨진 칸은 검은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벌집



꿀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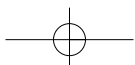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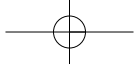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우리는 어두움이 있는 별집의 각 칸마다 예수님을 모셔와야 한다. 이것은 결코 한 번의 사건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지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다. 각 칸에 예수님을 모셔오므로써 점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성화되어 갈 수 있다.

일단 예수님이 별집의 어떤 장소에 들어와 거주하시게 되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을 점령하실 때 그 영역에서 예수님의 성품은 실제로 우리 것이 된다. 우리 마음 속의 별집의 한 부분에 좋은 뿌리가 심겨지면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쓰는 것으로는 효험이 없다. 열심히 애쓰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우리는 나쁜 뿌리를 찾아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짓말했고 우리는 그것을 비판했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를 비판함으로써 죄를 지었다. 죄의 나쁜 뿌리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우리가 이 나쁜 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는 우리 안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달라졌음을 깨닫지 못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워진 것이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

예수님께서 우리 안의 별집의 한 칸을 정결케 해주셨다고 해서 모든 칸이 다 정결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나쁜 뿌리들은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들에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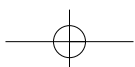
“...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립보서 2:12-13)

제 17장에서 이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말하려고 한다.

완속함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완전하게 치유 받고 자유해지기 원한다. 당신이 이 고통에서 치유 받고 나쁜 열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일단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왜 이 과정이 당신의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치유받기 원하시는가?

당신은 참을성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화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며 되도록 빨리 진행하고 계신다. 당신은 그 계획에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늦어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분이 늦게 가고 계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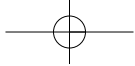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예를 들어서, 만일 당신 안에 있는 나쁜 뿌리가 과거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이 되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당신 안에 깊숙이 묻혀 있다. 당신의 방어벽이 그것을 물어버림으로써 아프게 기억하며 살지 않도록 한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기억을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충격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시며 또 다시 당신이 상처받기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뿌리를 당신에게 드러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시간을 끄신다. 당신이 다시 상처받지 않고 이 사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당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다루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과정은 당신이 이 쓴뿌리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숙성하게 하신다.

숙성한다는 것은 사과를 따는 것과 같다. 사과가 익기 전에 따려고 하면 따기가 힘들고 가지에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 익은 사과는 손을 대자마자 떨어진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를 때 그것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숙성시키고 계신다. 그리고 나면 그 과정은 치유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나무의 사과를 빨리 익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치유를 재촉할 수 없다.

안에서 밖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우리는 이런 성경구절을 읽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힘 또는 의지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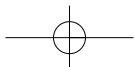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서는 이 구절의 문맥을 통해 그분이 말씀하시 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신다. 그 해답인 요한복음 15:5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의 말씀 사이에 끼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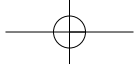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14:2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라”(15:5)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15:10)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겠는가? 이 구절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너는 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너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내 성품을 갖게 될 때 너는 내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은 그것이 그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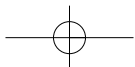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며 투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해 혼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의 원인(우리의 마음 상태)이 아닌 행동 자체(계명을 지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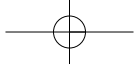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므로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마음이 먼저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된다. 행동이 변화되는 것으로 마음이 변화될 수는 없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일서 4:19)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흐르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많은 성경구절을 오역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온전한 흐름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4:15에서 15:17까지 다시 읽기 바란다.

비유로 이것을 설명해 보겠다. 내 다리가 부러졌다고 가정하자. 심한 진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나서 조금 덜 아프게 되었다. 그것은 내 증상을 조작한 것뿐이며 다리는 여전히 부러진 상태로 있다. 만일 진통제를 계속 먹는다면 다리는 덜 아프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 다리의 고통(증상, 나쁜 열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내 부러진 다리(원인, 나쁜 뿌리)가





고쳐지는 것(좋은 뿌리로 바뀌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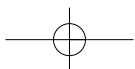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내 마음 속에 상처가 생기게 된다. 그것은 정서적인 아픔을 가져오며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행동하려고(증상을 조작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 안에 나쁜 뿌리(원인)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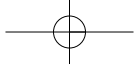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정말로 그러고 싶다.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떤 영역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 받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다. 증상이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문제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여태껏 원인이 아닌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나쁜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하겠다. 말씀의 강조점은 결코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뿌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쁜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게 할 뿐이며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짓이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게 한다.

우리가 열매와 뿌리에 대해서 혼동한다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오





역될 수 있다. 다음 구절들이 그런 중요한 예가 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고보서 2:17)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야고보서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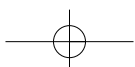
이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행함(좋은 열매)이 없다면 믿음(좋은 뿌리)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애써서 행하라는 뜻이 아니다. 좋은 뿌리가 원인(우리 안에 감추어진 상태)인 것처럼, 좋은 열매는 바깥에 드러난 증거(우리의 행함)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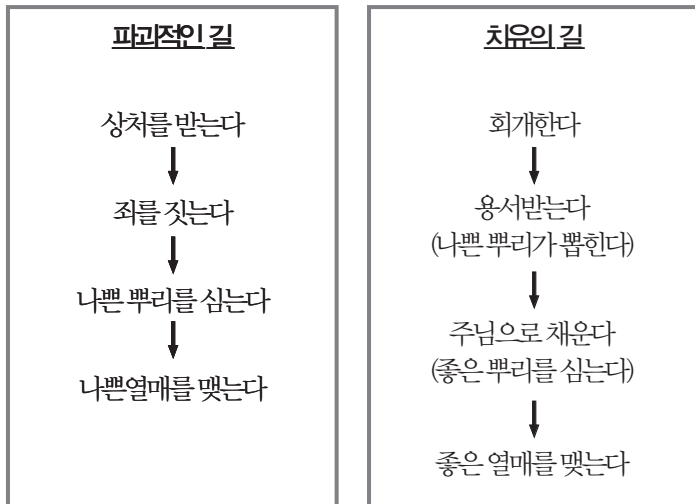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그 명령을 무시한다.
2. 내 힘 (의지) 으로 명령을 지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길이다.
3.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쁜 뿌리들을 처리하시도록 맡긴다. 이것이 치유의 길이다.

새로운 나쁜 뿌리 심기

치유의 길은 우리 마음의 별집 안에 있는 나쁜 뿌리 각각에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새로운 나쁜 뿌리들을 너무나 자주 심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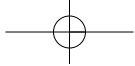




우리가 죄를 지으며 우리 안에 나쁜 뿌리를 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는 죄의 대부분은 판단의 죄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1-2)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우리는 분명히 나쁜 결과들을 거두게 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우리의 별집에 나쁜 뿌리를 심을 때 이것을 ‘쓴뿌리’ 라고 부르며, 판단하는 행위는 ‘쓴뿌리 판단’ 이라고 부른다. 나는 계속해서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할 것이다. 이 특정한 판단의



죄가 왜 그토록 심각하고 파괴적인지를 다음 장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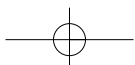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

나쁜 열매와 나쁜 뿌리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 과정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몇몇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이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과정을 어떤 사람은 내적치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정상적인 모든 기독교인들이 걷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요약

우리는 자주 죄를 짓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의 한 영역에 어둠을 심게 되며 이것은 인생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든다. 이 나쁜 뿌리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회개하며 어둠의 영역 각각에 예수님을 모셔올 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된다.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의 어떤 영역에 주재하시게 될 때 그 영역에서 작동되었던 하나님의 법칙의 저주적인 측면은 중단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나쁜 뿌리가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만약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의지로 명령들을 지키려 애쓴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

우리는 자주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를 매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분의 보혈이 있다. 하나님은 이 공급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공격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길을 열어 주셨다.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힘겹게 고군분투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과 같이 초청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